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읍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 신춘자(여, 1944년생, 성산읍 오조리)

• 줄거리: 밀이 없는 귀신을 모녀가 같이 본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종달리서 한인호가 실지로 봤덴. 밤에 이제 막 등북을 허레 가는데, 자기 어머니 영 이제 갖는데, 시커멍헌이 사름이 엄마가 허는 말이

“야 너 곳사 그 귀신 안 봤나?”

헤난,

“어머니도 볼데가?”

“응.”

“나도 봤수다.”

허난,

“어머니도 보안?”

허난,

“응. 기여.”

“게난 겁 안 납데가?”

“흠마 나 겁나네. 물더레 꽃어가카부덴 허난 안 꽃어간 제우 살안 나왔저.”

“난야 봐도야. 그걸 귀신인가 헤여네 정신 똑바로 출련에, 막 등북 허당 보난, 어평 안 헉디다.”

경 헌 말 들어젧수다.

[조사자] 같이 잇엇던 건 아니마씨? 따로 잇어난,

[제보자] 아니, 요디 살아. 종달리 사름인다.

[조사자] 경 헝 아팠저 허는 애긴?

[제보자] 아니 아팠덴 안 혀. 자기가 뭇허니깐 자기 엄마는 놀래가지고 물에 빠질 뻘해서 와 버렸는데. 딸은 그것을 이겨낸 모양이라.

• 핵심어 : 귀신, 등북, 물, 종달리, 모녀